

# 프랑스 루브르박물관도 감탄한 전주 한지

### 학예장 등 복원전문가 전주서 한지 제조과정 체험·견학 세계문화재 복원시장 일본 화지 넘어 한지 수출 '청신호'

세계 3대 박물관인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전시와 보존·복원 총책임자들이 전주시를 찾아 전통한지 제조과정을 체험했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루브르 박물관의 자비에 살몽(Xavier Salmon) 학예장과 아리안 드 라 샤펬(Ariane de La Chapelle) 보존복원 응용연구책임자, 김민중 문화재복원가와 김성중(새미래에서온중이협회 이사 등 4명이 한지의 제조과정을 체험·견학하기 위해 전주를 방문했다.

전주한지에 탄복했다. 자비에 살몽 루브르박물관 학예장은 "전주산 다펀나무 재료를 만든 외발뜨기 전주한지를 사용해 보니 질기고 치수안정성과 보존성이 뛰어나 문화재 복원 용이로 손색이 없다"면서 "전주한지가 루브르뿐 아니라 세계지류시장에 진출하는데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루브르박물관의 방문은 앞서 지난해 11월 박물관 복원실 관계자와 세계 종이 관련 학자 등 11명이 방문한데 이은 것으로, 유럽 문화재 복원시장의 판로개척에 탄력을 받게 됐다. 나아가 세계문화재 복원시장을 수십년간 독점해온 일본의 화지(和紙)를 넘어 세계 유일 최고의 종이로 거듭나 세계 지류시장을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parkks@

전주한지는 지난 2017년 루브르박물관 소장 문화재인 '바이에른 막시양2세 책상'을 복원하는 데 쓰였다. 최락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방문단들에게 복원력과 보존성이 강하며 더없이 부드럽고 오랜 생명력을 지닌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전하는 기회가 됐다"며 "세계기록문화유산의 복원작업이 우수한 전주한지로 상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의 자비에 살몽 학예장과 아리안 드 라 샤펬 보존복원 응용연구책임자 등이 전주 한지의 제조과정을 체험·견학하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 <전주시 제공>



남원 춘향골 햇감자 주산지인 금지면 농민들이 햇감자 출하 작업으로 분주하다. <남원시 제공>

## '아삭아삭' 춘향골 햇감자 본격 출시

### 대도시 소비자에 인기...올 240여 농가 45억원 수익 기대

남원시는 춘향골 햇감자의 주산지인 남원시 금지면 일대에서 한겨울 추위를 뚫고 지난 춘향골 햇감자를 본격 출하한다고 10일 밝혔다. 김판용씨 농가 등에서 수확한 햇감자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센터)에서 선별돼 공급됐다. 가격은 20kg들이 박스당 4만원선으로 거래된다. 가을에 수확한 저장감자에 비해서는 2~3배 높은 가격이다. 금지면 일대는 퇴적 평야지 미사토양으

로 배수가 잘돼 감자 생장에 좋다. 또 농민들이 오랜 경험과 기술 축적으로 아삭한 식감이 뛰어난 맛좋은 감자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인월·아영면 지역에서 생산된 춘향감자를 공급해 겨울철에도 햇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을 받아 갖췄다. 남원시는 올해 240농가에서 95ha를 재배해 45억원의 조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군, 농촌개발대학 신입생 모집

### 다음달 14일까지...브랜딩마케팅과 등 5개 과정 200명

고창군은 지역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미래 농업리더 양성을 위해 '농촌개발대학' 신입생을 다음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정규과정으로 ▲브랜딩마케팅(40명) ▲쌀브랜드과(40명) ▲수박과(40명) ▲멜론과(40명) ▲복분자과(40명)를 편성해 5개 과정에 총 2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브랜딩마케팅과'는 브랜드 마케팅의 활성과 방안과 경영능력 향상과 인적네트워킹 형성을 위해 운영된다. 또 고창 쌀 품

질 고급화와 브랜드를 이끄는 '쌀브랜드과', 연작 장애 극복을 위한 토양관리 교육을 진행하는 '수박과', 복분자 고사 원인 파악과 재배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복분자과' 등이 진행된다. 농촌개발대학 교육 신청대상자는 고창에 거주하는 고창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정원을 초과할 경우 학과별 우선순위에 따라 교육생을 선발하게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고창군, 농업생산 기반시설정비 128억원 투입

### 농로 확포장·저수지·배수로 등 정비 사업 추진

고창군은 올해 128억원을 투자해 농로 확포장, 저수지, 농로,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농촌의 쾌적하고 안전한 영

농기반을 조성해 농촌기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정비 사업은 산수제 등 12개소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

업, 아산·주진 등 3곳의 한해지역 취입보설치사업, 경지정리 유지관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재해 취약 노후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 경제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등 8개 분야이다. 특히, 군은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

해 지역 주민들의 영농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고품질의 농작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정읍시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 집배원·검침원 등 '엔젤복지통신원' 1004명 모집

정읍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인적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제도를 도입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엔젤복지통신원 제도는 2020년 사회복지 신규시책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에 가

까이 다가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인적 사회복지 안전망이다. 우리 생활에 근접해 있는 생활업종 종사자들을 선발해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제보해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

다. 정읍시는 이를 위해 2월부터 '엔젤 복지 통신원' 참여 대상자 1004명을 모집한다. 참여 대상자는 집배원과 건강식품 배달원, 전기·가스·수도 검침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택배기사, 사회복지종사자, 자원봉사자, 이·미용사, 택시기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다. 찾아가고 찾아오는 인적 안전망 1004명으로 구성되며,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

해 시청 희망복지팀이나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제출하면 된다. 정읍시는 선발된 엔젤 복지 통신원에게 위기가구 발굴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 가이드 내용이 수록된 활동수첩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와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 등 지역 봉사 시민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

## 익산시, 첫째 출산장려금 100만원으로 증액

### 육아용품 구매비 지원도 모든 아이로 확대

익산시는 올해부터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은 기존 대로 유지한다. 익산시는 셋째 아이 이상을 낳은 가정에 지원하던 육아용품 구매비도 올해부터 모든 아이로 확대한다. 다만, 셋째 아이 이상

은 25만원, 첫째와 둘째는 10만원만 준다. 익산시는 마을 주민이 함께 아이들 돌보는 '우리마을 돌봄 공동체 사업'도 도입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